

2019년 3월 정기인사 시기 번복에 따른 성명서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3월 정기인사 시기 번복에 따른 이번 사태에 대해 700여명 공직자 조합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가평군청은 당초 2019. 1. 28. 근속승진 및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통해 2019. 3. 5. 정기인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9. 3. 4. 승진임용에 대한 사전예고를 변경하여 2019. 3. 11로 정기인사 시기를 늦추었다. 그리고 다시 이틀 만에 2019. 3. 6. 사전예고를 변경하여 2019. 4. 1.로 시기를 늦추며 번복하였다.

인사사전예고는 「가평군공무원노사 제1차 단체협약서」 제31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조합원에 대한 인사운영 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막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며, 동 협약서 제7조에 따라 가평군(교섭대표: 가평군수)과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교섭대표: 위원장)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인사권한 남용과 전횡이 계속되고 있음에 가평군 이하 집행부는 협약 이행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 노조는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음을 밝히고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불미스러운 각종 의혹을 야기하는 인사사전예고 변경을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둘째,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원조정(30명 증원) 연기사유를 들어 조합원에게 실망을 주는 집행부의 해명이 아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2019. 3. 8.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장동익